한국 '불교미술' 잇는 불모들 향연

제3회 불교미술 일섭문도전 '2018 불모들의 향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 불교미술을 망라하는 전시가 열린다. 한국 근현대불교사의 대표 불모 일섭 스님(1900~1975)의 계보를 잇는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이사장 김성규)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제3회 불교미술 일섭문도전 2018 불모들의 향연'을 개최한다.(개막식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문도간의 유대증진과 불교미술의 정통성 확립으로, 불교미술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일섭 스님의 계보를 잇는 문도 82명이 참여해 회화, 조각, 단청, 공예, 종이그림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8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일섭 스님의 '석가모니후불탱화(280×150cm 면본 안료채색)'를 비롯한 석정 스님의 '아미타후불탱(360×210cm)' 등 전통적인 불화와 김성규의 '단청문양(63×216cm×12폭 병풍)'을 비롯한 단청 작품, 손연칠의 '불(70×70cm 동 바탕에 유약)'을 비롯한 현대적 기법의 회화, 한봉석의 '목조 당사자상(700×300×900cm 소나무 · 은행나무)'을 비롯한 공예, 오세종의 '미륵반가상(230×170×450cm 청동, 수은, 순금)'을 비롯한 불보살상, 이문희의 '금용일섭불모 진영(85×122.5cm 비단, 수간채색)'을 비롯한 진영 등 불교미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일섭문도회의 정기전은 '문도전'이라는 특성을 살려 전통예술의 각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역량을 보유한 무형문화재, 기술자 등 장인에서부터 이제 입문한 동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인다.

불교미술 일섭문도회는 조선후기 대표 불화의 화풍이었던 유성화풍의 맥을 계승한 일섭 스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불화와 단청, 조각, 공예, 고건축 등 우리나라 불교미술 전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역 작가 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 18명의 회원이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많은 회원들이 문화재 수리기능자 ·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다. 일섭문도회는 2010년 마곡사에 최초로 불모비림을 조성하여 앞선 불모들의 행적비를 세우고, 전시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불모수첩 발행으로 불모의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으로는 문도들의 실력 향상과 밖으로는 불교미술의 저변을 넓혀왔다.



강희라 作, '원효 진영 모사'(사진 왼쪽)와 오세종 作, '미륵반가사유상'.


박명옥 作, '빛으로 나투사' 54×54cm 한지, 옻칠한지, 머메이드지, 판화지, led조명

유성, 금호, 보응으로 이어진 계보를 이어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활동했던 일섭 스님은 15세에 전남 송광사에서 출가해 19세에 한봉린 스님을 만나 불화를 처음 그렸고, 23세에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각지 불모들과 교류했다. 1970년 불교미술 최초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됐다. 이후 일생동안 해인사 사천왕탱화, 조계사 후불탱화, 송광사 시왕탱화, 옥천사 팔상탱화, 백양사 사천왕 소조상 등 남한의 제주에서 북한의 함흥 · 연변까지 전국의 주요 사찰에 불화와 단청, 불상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 김성규 이사장은 "불교미술은 우리 전통미술공예의 근간으로 단청, 불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우리 전통문화의 보고이다. 그간 우리 일섭문도회 300여 명의 회원들은 금용 일섭 대불모께서 후학들에게 전해주신 불교미술의 진수를 이어가기 위해 전국 각지 불교미술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시회가 불교미술과 전통문화 창달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는 2000년에 창립됐다. 2012년 서울미술관에서 첫 번째 정기회원전을 개최했으며, 2015년에 두 번째 정기회원전을 개최했다. (02)580-1300.


봉정사 괘불탱화.

1710년 産 봉정사 괘불탱화

통도사성보박물관 제36회 괘불탱 특별전
봉정사 괘불탱화전 2019년 4월 7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은 2019년 4월 7일까지 제36회 괘불탱 특별전으로 경북 안동 봉정사 괘불탱화(보물 제1642호)를 전시한다.

대형 크기의 괘불은 사찰에서 야외법회 때 모시는 의식용 불화로 평소에는 보기 힘든 불화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매년 2회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매년 개산대재에 맞춰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해 왔다.

이번에 전시되는 봉정사 괘불탱화는 세로 823cm, 가로 647cm로 35~39cm 폭의 삼베 16폭을 이어 바탕을 마련했다. 화면 하단에 쓰인 화기에 의하면 강희49년(1710)에 조성한 '영산회' 괘불탱화로 수화승 도문(道文)을 중심으로 설잠, 계순, 해영, 종열, 성은 등 총 7명에 의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화면 중앙의 석가모니불은 붉은 화염무늬와 녹색 모란문이 시문된 주형(舟形)광배를 배경으로 시립했으며, 오른손은 가슴 앞에 들어 보이고, 왼손은 배 앞에 들었다.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 우 팔대보살을 배치했는데, 1열에는 연꽃을 든 보살이 3위, 여의를 든 1위의 보살이 있고, 2열에는 왼손으로 황금색 정병을 들고 보관에 아미타불이 도해된 관음보살과 오른손으로는 관인을 들고 보관에 정병이 있는 세지보살이 있다. 3열의 보살은 두 손을 합장한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석가모니불의 광배 위쪽은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비롯한 제자와, 두건을 쓴 나한이 배치되었다. 백색, 먹, 녹, 적색을 적절하게 섞어 안면을 개성 있게 구분했으며, 곱슬머리, 부릅뜬 눈을 표현했다. 특히 가섭존자는 주홍빛에 가까운 얼굴에 백선으로 털과 수염을 그렸으며, 먹과 담채를 섞어 노승의 주름과 피부를 표현해 연륜을 나타냈다. '봉정사 괘불탱화'는 양식적으로 17세기 괘불에서 보이는 고식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18세기 전반 경북지역 화승들과의 공통되는 특징을 표현한 작품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055)382-1001.

박재완 기자

불화로 짓는 따뜻한 공덕

제1회 장애아동을 위한 불교회화 전시회
불일미술관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선혜불교미술연구소(소장 현우)는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 제2관에서 현우 스님의 '제1회 장애아동을 위한 불교회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정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이번 전시에는 현우 스님의 '관음도' 등 그 동안 현우 스님의 '마음으로 그린' 불화들과 오방색의 훈훈한 색감을 장애아동들과 나누기 위해 제자들이 준비한 다양한 소품이 함께 전시된다.

현우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업연으로 장애를 안고 있는 모든 장애아동들이 다음 생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발원하고, 그 마음이 세세생생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마련했다.

불화는 단순히 테크닉이 아닌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강조하는 현우 스님은 후학들을 위한 불화지도와 불교회화를 통해 문화포교를 실천하고 있다. '승가원장애아동센터'에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자각각타의 정신과 '참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온 현우 스님은 이번 전시회의 작품판매수익금을 '승가원장애아동센터'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02)733-5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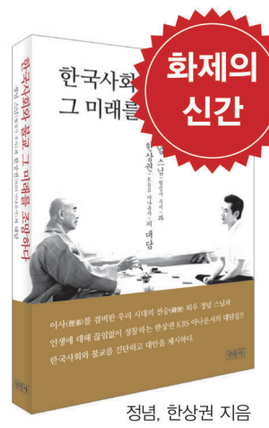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현우 스님 作, '관음도'.

한국사회와 불교 그 미래를 조망하다

정념 스님 | 월정사 주지 | 과 한상권 | KBS 아나운서 | 의 대담





정념, 한상권 지음
국판 344쪽 ‖ 16,500원

"이대로 가면 한국불교는 10년 내에 제3의 종교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한국불교! 위기의 한국사회!

통찰력과 지혜를 겸비한 퇴우 정념 스님과 한상권 KBS 아나운서의 대담집, 정념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념 스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승으로서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전반에 대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가 처절한 위기의식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는다.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